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 및 규칙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후 그것의 유사성과 차이를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 ① (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② (가):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 ③ (나): 특정 사회의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④ (나):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명제에 내재된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성적 매력의 자유로운 표현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누구의 인격적 가치도 훼손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갑: 동의합니다.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 상품화는 자본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성 상품화는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본의 논리에만 종속된 타율적 선택일 뿐입니다.

- ① 성 상품화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과인가?
- ②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는가?
- ③ 성적 매력을 표현할 때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가?
- ④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적 매력의 표현을 금지해야 하는가?
- ⑤ 성적 매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자본의 논리에 부합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평가는 작품에서 받은 인상을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소재로 바꾸어 놓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반면, 교양인은 작품에서 아름다움만을 발견합니다.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쓰인 책과 형편없이 쓰인 책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언어도 예술가의 도구에 불과하며, 덕과 악덕도 예술의 소재일 뿐입니다. 예술가에게 있어 윤리적 공감은 진부한 양식의 답습일 뿐이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①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② 예술가의 윤리적 공감은 예술적 창의성의 발현을 저해한다.
- ③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작품 내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 ⑤ 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을 통해 도덕적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端)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지닌 것은 마치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닌 것과 같다.

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큰 도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 ① 갑: 선한 마음을 보존하여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사회 혼란의 근원인 예법을 폐지하고 타고난 덕을 뒤야야 한다.
- ③ 을: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사물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 ④ 을: 인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위자연의 도를 따라야 한다.
- ⑤ 갑과 을: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성을 지닌 인간의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는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의 영역에서는 자명한 일이었다. 오늘날 책임이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태계와 인간 종족의 미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인간 권력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인간의 권력이 인간 스스로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이 요청된다.

- ① 권력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책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된다.
- ② 선의로 실행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 ③ 권력이 초래할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당위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 ④ 미래 세대의 존속은 현 세대의 권력을 규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⑤ 인간 상호 간 책임을 인간과 자연 상호 간 책임으로 확장해야 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가 누구든 재능이 어떻든 여러분은 저마다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각자 삶의 전망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타고난 재능, 지위 같은 우연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을 모두 함께 합의하는 가상의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합의된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재능 활용이 동료 시민 전체, 특히 가장 불리한 처지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합니다. 이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 존중과 박애를 실현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다양한 약기의 협주가 화음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의 다양한 재능들의 분포가 호혜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는 정의감을 우리 모두 능히 행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①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삶의 목적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 ②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의 합의이므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③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는 없다.
- ④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 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들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백성을 잘 다스리려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는 사람은 절약해야 한다. 관청 재물을 자기 재물처럼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목민관이다.
 ○ 절약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가족, 친구와 멀어지니 곤궁한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진 목민관이 즐겨 힘쓸 일이다. 이는 녹봉이 여유가 있을 때야 가능한 것이지, 관가의 재물로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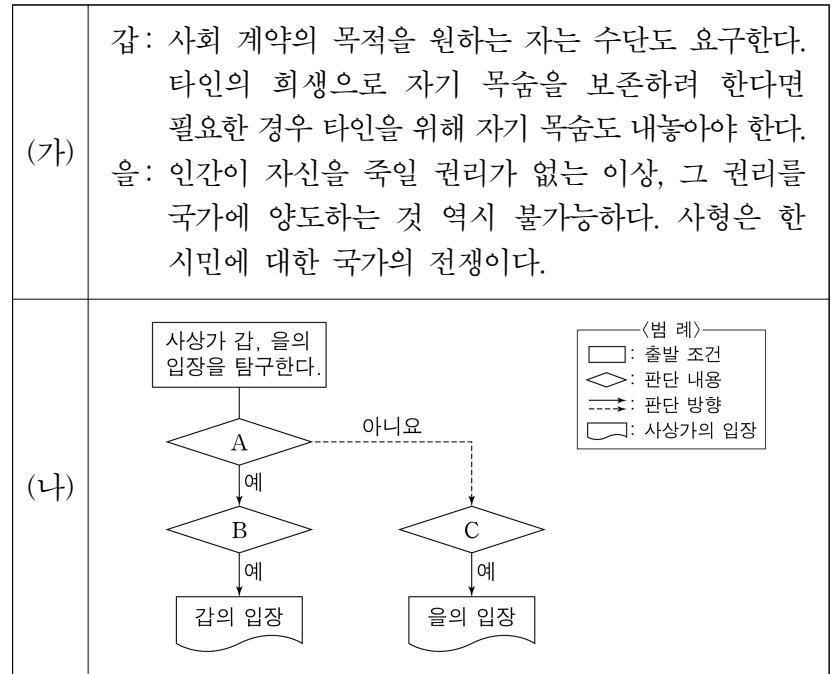
- ① 목민관은 곤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한다.
- ② 목민관은 청렴을 실천해야 백성을 자애로 다스릴 수 있다.
- ③ 목민관이 친구와 가족을 돌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 ④ 목민관은 공적 재산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⑤ 목민관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엄격하되 베푸는 것도 즐겨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한계급은 다른 모든 계급이 추종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소비가 낭비적이어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시 소비가 대표적이다.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는 과시 소비의 주요 동기이며, 재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근본 이유도 과시 소비로 명성을 얻기 위함이다. 과시 소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시 소비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과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 ① 유한계급은 사회 전체가 선망하는 생활 양식을 제시한다.
- ② 과시 소비는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모적 낭비이다.
- ③ 과시 소비는 어떤 관점에서도 유용한 소비로 간주될 수 없다.
- ④ 유한계급만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계급이다.
- ⑤ 더 소유하려는 욕구는 명성에 대한 갈망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사회 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ㄴ. B: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는가?
 ㄷ. C: 오직 공리를 기준으로 범죄의 경중을 측정해야 하는가?
 ㄹ. C: 정당하지 않은 형벌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지배 계급의 특권을 박탈하면 그들의 이익은 전체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것이다. 이때 이성이 특권층의 위세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즉,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을 없애기보다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합리적·도덕적 요소에 맞게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로써 사회는 평등한 정의라는 가장 합리적인 궁극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① 인간 사회에서 특권은 박탈될 수도 약화될 수도 없다.
- ② 지배 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강제력은 모두 필요하다.
- ④ 불평등과 갈등이 소멸된 평등한 정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
- ⑤ 강제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정의 실현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 대체로 질서 정연하지만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전체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즉, 중단시키려는 악의 규모뿐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해 법에 대한 존중이 감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보 기>
 가. 갑: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한다.
 나. 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다. 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는 불복종할 수 없다.
 리. 갑과 을: 합법적 항거 수단이 있는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도 없었고 기(氣)도 없었다.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생겼다. 또 그 삶이 변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계절의 운행과 같다.
 을: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만약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기(緣起)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① 갑: 죽음에 초연한 사람만이 기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갑: 죽음은 슬퍼해야 할 일이므로 예(禮)로써 애도해야 한다.
 ③ 을: 죽음을 통해서만 원인과 조건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④ 을: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도(道)를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곧 성현(聖顯)이라 한다.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는 다수의 성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반면, 세속적 인간은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며,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도 종교적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을 창조하는 절대적 실재이다.
 ②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성현을 경험하지 못한다.
 ③ 종교적 전제를 수용하는 인간에게만 종교적 태도가 나타난다.
 ④ 종교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⑤ 한 사물에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을: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옳고, 그와 다른 경향이라면 그르다.</p>
(나)	

<보 기>
 가. A: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나. B: 개별 생명체 중 의무의 주체는 모두 의무의 대상이다.
 다. B: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리. C: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반장 A는 체육 대회에서 학급이 받은 상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어떤 친구들은 간식을 사서 먹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친구들은 봉사 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 ① 개인의 쾌락을 포기해야만 전체의 공리가 극대화됨을 명심하세요.
 ②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세요.
 ③ 쾌락의 질적 차이는 오직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④ 쾌락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로 환원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세요.
 ⑤ 쾌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세요.

1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과거에는 광장이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면,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며, 공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의 공간이다. 이 공간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발언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한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는 과정에서 배우는 능력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할 수 없다.

- ① 근거의 적절성이 확인된 주장만이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다.
- ③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주제는 공적 담론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신념을 배제하고 발언해야 한다.
- ⑤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토의 과정에서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자연 상태의 자유를 내려놓고 소유 보전을 위해 사회 결성에 동의하는 계약뿐이다. 통치의 목적은 소유권 보전이며, 법의 목적은 자유 보장이다.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 성립된 국가에서 최대 해악은 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다. 반역은 법에 대한 위반이며, 권력자가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권력자는 권력을 과시하고 무력을 휘두르고픈 유혹과 측근의 아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신탁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을 파괴하는 권력자야말로 진짜 반역자이다.

- ①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한다.
- ②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사회 계약 이후 정치 권력과 법은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④ 인민만이 권력자의 신탁 위반을 심판하고 그를 파면하는 주체이다.
- ⑤ 입법부를 설립하면 권력자가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이 차단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권력을 향한 주권 국가들의 열망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과 같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나는 세력 균형이고, 나머지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이다.

을: 주권 국가들 간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평화 상태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는 시민적 체제와 유사한 체제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 ① 갑: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국가들 간 전쟁을 억지할 수 없다.
- ② 갑: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이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 ③ 을: 국제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화 연맹으로 귀속된다.
- ④ 을: 국가들 간 자연 상태는 평화 연맹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과 을: 국제법의 적용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 그들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 <보 기> —


- ㄱ. 갑: 원조 주체인 사회가 모두 질서 정연한 사회인 것은 아니다.
- ㄴ. 갑: 원조 대상은 오직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뿐이다.
- ㄷ. 을: 원조 주체와 대상의 행복을 모두 증진하는 원조는 가능하다.
- ㄹ. 갑과 을: 원조의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기증된 장기를 대체 불가능한 의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의식도 없고 소생 가능성도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는 의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 기증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기증된 장기의 활용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입니다.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 기증은 환자의 의지에 반할 수 있고, 신체를 자원으로만 취급하므로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을

- ① 갑: 의료 자원의 확보는 연명 치료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없다.
- ② 갑: 사회의 이익을 위한 장기 기증도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③ 을: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 기증은 어떤 이익도 낳지 않는다.
- ④ 을: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수단화하는 것은 인격을 훼손한다.
- ⑤ 갑과 을: 장기 기증의 정당성은 기증자 가족의 의지에 의존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